

역사적 기억의 정치적 활용:

북한의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분석을 중심으로

조은희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국문요약

북한은 전형적인 독재국가로서 강제력에 의한 국민동원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인민들로부터의 자발적인 동원 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집중하고 있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의 정치적 활용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959년 출판되었을 당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의 목적은 ‘항일빨찌산들의 혁명정신’을 따라 배우는 것이었지만, 1969년도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가 수정 재출판된 이후에는 학습목적이 ‘김일성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바뀌었다. 이후 2003년부터 수정 출판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의 학습목적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대를 이어 계속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로동신문』에 총 18편의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가 집중 게재되었는데 이는 3대 세습과 관련하여 대를 이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었던 시기로 평가해 볼 수 있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는 1980년대 이후 아동용, 고등중학교 학생용이 따로 출판되었고, 대상별로 교육되어졌다. 또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는 ‘회상기 소설’과 ‘회상기 영화’ 등 다양한 문화적 매개물을 통해 인민들에게 전해졌다.

2003년 20권을 목표로 새롭게 수정 재출판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는 2012년에 20권이 출판 완료되었다. 2012년 현재 북한은 세습정권의 정당성 창출의 어려움과 경제난의 지속이라는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회상기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기억, 역사, 회상기, 항일무장투쟁, 혁명전통

I. 서론

북한은 2012년 4월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을 완성하였다. 하지만 3대 세습에 대한 정당성 약화, 그리고 북한 경제난 지속으로 인해 ‘위기’가 끊임 없이 예상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북한은 2012년 현재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체제를 유지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1994년 김일성 사망당시 많은 연구자들이 ‘북한의 붕괴’를 언급한 것과 비교해 볼 때 2012년 김정은으로의 세습과정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면 북한이 불안한 징후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전형적인 독재국가의 물리적 통제를 기반으로 한 위로부터의 강제적 동원만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본 연구는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를 하는데 있어 위로부터의 강제적 동원 뿐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동원 체제를 만들어 냈고, 이것이 현재 경제·사회적 극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원동력임을 밝히려고 한다. 이제까지의 북한연구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거시적인 틀 안에서의 정치적인 설명이 대부분이었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 집단생활을 강조하고 강제력에 의한 국민동원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이다. 하지만 경제난과 체제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3대 세습 등 체제의 정당성 강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물리적 강제력만으로는 국민들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 체제의 유지를 설명하는데 있어 위로부터의 물리적 강제력은 물론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동원체제가 만들어져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특히 북한의 ‘혁명역사’ 교육에서 국민들의 ‘기

역'을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와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동의는 어떤 체제를 막론하고 중요한 생존방법이다. 독재와 민주주의, 좌파독재와 우파독재를 막론하고 폭력과 억압은 정치체제의 유지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생산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체제가 아래로부터의 대중의 동의와 지지를 조직해 내기 위해서는 전제군주의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지배가 아니라 합리적인 근대의 지배 매커니즘이 요구된다. 즉 전제권력과 비교하여 근대의 독재 권력은 문명화된 파놉티콘의¹⁾ 감시체제에 자신의 권력을 숨기고 자발적인 지지의 외양을 얻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는 나치즘과 같은 독재체제에서도 발견되어진다.²⁾

이렇게 정권들은 정치 체제에 대한 대중들의 동의와 지지를 위해 정권에 부합하는 '역사적 기억'과 '전통'을 활용하고 그것을 문화적 상징들로 포장함으로써 강제력에 의한 드러내는 권력이 아닌 드러내지 않는 세련되고 부드러운 권력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정치체제가 지난 60년 간 유지되어온 원동력으로써 대중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지지를 얻기 위해 정권에 부합하는 '역사적 기억' 즉, 1930년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기억을 재구성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이하 『회상기』)의 출판과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회상기』는 1959년 처음 출판되기 시작하여 2012년 현재까지 수정 재출판되어 인민들에 대한 사회 통합의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1) 파놉티콘이란 소수의 감시자가 모든 수용자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시할 수 있는 형태의 감옥이 제안되면서 쓰이기 시작했다.

2) 히틀러 역시 “독일 주민 대다수로부터 괄목할 만한 정도의 인기”와 “대중적 지지 기반”을 누렸고, “국민투표를 통해 체제의 정당화하는 높은 수준의 갈채”를 얻었다고 한다. 임지현·김용우 엮음, 『대중독재 1.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서울: 책세상, 2004), pp. 26-27.

는 『회상기』 분석을 통해 개인의 기억과 집단의 기억이 국가의 역사로 전환된다는 것을 밝히고, 또한 이렇게 역사화된 기억은 매체를 통해 세대를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역사적 기억의 정치적 활용

알바쉬(Maurice Halbwachs)는 꿈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기억은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 기억 자체가 사회적 관계의 산물인 말과 글을 매개로 삼아 형성되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특히 언어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주는 사회집단적 범주들인데 이것 없이는 기억의 구성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기억은 개인적 기억이 아니라 집단기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³⁾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고 확인된 것들이고, 현재 사회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망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새로운 집권세력이 이전의 사회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꾸려는 의지를 가졌을 때 과거 기억에 대한 재현문제는 정권의 안정적 기반창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⁴⁾ 즉 개인 또는 집단적 기억이 현재 정권 지도부의 정당성과 권위를 강화시킨다면 그 기억은 역사적 기억으로 적극

3)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제85권 (2003), pp. 163~164.

4) 혁명 이후 러시아의 당과 국가기구는 오랜 동안의 관리경험과 통치경험을 가졌던 관리들의 대대적인 숙청 같은 충격적인 사회변화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하여 시각매체인 포스터를 사용하였고, 당시 포스터는 사람들의 집단기억의 강화, 왜곡, 은폐라는 목적에 기여하였다고 한다. 박원용, “집단기억의 강화, 왜곡, 은폐: 1920년~1930년대 러시아의 시각이미지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96호 (2008), p. 87.

적으로 활용되고, 그 반대는 억압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기억의 역사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기억의 역사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당시 정권 지도부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많은 기억들 중에서 당시 정권에 의해 역사로 수용된 기억은 긍정적인 기억이고 반대로 배제된 기억은 망각이자 앞선 기억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⁵⁾ 적극적 수용은 역사연구와 서술에서 강조로, 소극적 수용은 종속으로, 소극적 배제는 주변화로, 적극적 배제는 전면적 삭제로 나타난다.

이처럼 기억을 역사화 하는데 있어 선택과 배제의 작업은 당시 정권 지도부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권력집단은 권력의 획득과정을 정당화하고, 자신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기 지배를 영속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역사를 독점하려 하기 때문이다. 지배 권력은 공식적 역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억들을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말살함으로써 그 기억들이 역사로 전환되는 것을 저지한다.⁶⁾

과거의 개인 경험으로서 어떤 기억이 이처럼 당대 ‘역사적’이라는 의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체험을 넘어 문화적 맥락 속에서 집단이 공유하는 의미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역사화된 기억은 권력집단이 의도한대로 정권의 정당성과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⁷⁾ 이렇게 당대적 맥락에 의해 재구성된 기억이 축적되고 전승되는 중요한 도구는 ‘문화’이다. 즉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의미, 의사소통, 그리고 생각 등은 텍스트로 구조화되어야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⁸⁾ 한 사건이 텍스트화 될

5)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p. 176.

6) 위의 글, p. 170.

7) 나은진, “전쟁의 역사화 방식과 공유기억의 문화적 재생산,” 『한국문화연구』, 제13권 (2007), p. 326.

때, 어떤 표현수단을 사용하는가의 문제는 그 텍스트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영향을 끼친다.

기억이 ‘매개된 행위의 한 형태’로서, ‘능동적인 행위자와 문화적 도구의 관계’를 끌어들이는 것이라 할 때, 문화적 도구란 과거를 수용 가능한 형태로 텍스트화하는 형식 또는 수단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러티브 텍스트이며, 다큐멘터리 영화, 박물관 전시, 통계보고서 등⁹⁾도 이에 해당한다.

국가에서 생산된 역사(특히 자국사)는 교육을 매개로 국가가 의도하는 집단기억을 국가구성원들에게 갖게 한다. 이 경우 한 국가의 역사는 근대 국민국가의 집단기억을 위한 매개물, 즉 문화적 도구인 셈이다.¹⁰⁾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매개물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역사적 사건을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듯한 경험을 하게 하여 기억을 세대를 걸쳐 전승되게 한다.

정권의 의도에 의해 역사화된 기억은 여러 세대에 걸쳐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교육되고 환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속성이 집단구성원들의 믿음과 결합될 때 역사화된 기억은 경험적 성격을 버리고 초역사적 당위성¹¹⁾을 얻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각 국가마다 자국 역사에 대한 교육은 집단기억을 새롭게 창출하거나 기존의 집단기억을 수정 또는 확대·심화 하는 중요한 도구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

8) 한 사회 내에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쟁취한 집단은 그들의 제한된 기억을 머나먼 기원에 소급함으로써 그것의 배타성을 은폐하고 자기 집단의 보편적 정당성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록물, 텍스트, 건축물, 동상, 묘비, 사원, 기념비 또는 제의와 축제 등의 매체가 동원된다. 김학이, “민족의 기억, 민족의 상상: 안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 김학이·김기봉 외, 『현대의 기억속에서 민족을 상상하다』 (서울: 세종출판사, 2006), p. 23.

9) 위의 글, p. 24.

10) 양호환, “집단기억, 역사의식, 역사교육,” 『역사교육』, 제109집 (2009), p. 13.

11)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p. 166.

과정에서 정권은 기존의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억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한다.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집단이 갖고 있는 현재적 욕구의 산물¹²⁾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기억의 형성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집단과의 연관이다. 먼저 공간은 서구의 전통적 기억술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요소이다. 기억술의 원칙에 따르면, 효과적인 기억을 위해서는 특정 장소를 선정한 후, 의식 속에서 간직하고 싶어 하는 대상에 관한 심리적 상을 만들어 그 장소와 결부시켜야 한다. 기억은 곧 일련의 공간들을 연상함으로써 그 공간과 관련된 일련의 사물들을 연속적으로 회상해나가는 것이다.

기억은 특정한 장소를 통해 구체적 형상을 얻지만, 그 형상이 우리 의식 속에서 실재화되기 위해서는 시간과의 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집단 기억의 형성과 전승에서는 이와 함께 달력에 남은 자연적 절기, 종교적 기념일, 문화적 축일,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날과 같은 ‘사회적 시간’도 규정적 역할을 행사한다.¹³⁾

북한 역시 정권의 정당성 창출과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억을 역사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글은 1960년대를 전후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북한에서 정권과 관련된 ‘기억’을 집단기억으로 만들고 그것을 역사화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한다.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김일성의 빨치산파로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서는 인민 대중들이 기억해야 할 역사로 1932년부터 1945년까지 만주지방과 백두산 지역에서 있었던 김일성과 항일빨찌산들

12) 위의 글, pp. 177~178.

13) 위의 글, pp. 164~165.

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가 선택되었다. 1932년부터 1945년까지의 역사는 북한의 건국에서부터 정권의 정당성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제3세계가 식민지에서 벗어나 국가를 설립하는데 있어 가장 근거가 되는 정권의 정당성은 식민지 당시 항거하였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항거하였던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은 김일성 정권 정당성의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회상기』는 1932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김일성, 그리고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였던 동료들의 기억을 기록한 것으로 당시 김일성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역사적 기억’으로 선택되었다. 그 역사적 기억은 지금 현재까지 북한의 건국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¹⁵⁾ 때문에 『회상기』는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그리고 현재 정권 유지의 중요한 매커니즘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회상기』는 1959년 처음 발간되기 시작한 이후 2012년 지금 현재까지도 북한 인민들의 기본적인 교양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4) 북한과 비교해 남한 정권의 정당성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에 근거하고 있다. 조은희, “남북한 박물관 건립을 통한 국가정통성 확립,” 『북한 연구학회보』 13권 (2009), <표 1> 참조.

15) 1970년대부터 북한은 북한의 건국·건당·건군 역사를 1930년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로 소급하고 있다. 즉 북한 정권의 모든 역사는 1930~1945년까지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회상기』는 북한에서 건국의 역사와 다르지 않다.

Ⅲ.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분석

1.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출판의 시기적 특징

『회상기』는 북한에서 1959년 처음 출판되었다.¹⁶⁾ 『회상기』 내용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함께 한 동료들의 투쟁기억에 대한 회상내용으로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1958년까지 당내의 소련파와 연안파 숙청이 마무리 된 시점부터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즉 김일성의 빨치산과 별 이외 종파로 규정되었던 소련파와 연안파의 투쟁경험 및 투쟁역사가 철저히 배제된 상황에서 집필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59년부터 출판된 『회상기』는 1967년 9권까지 출판되었다. 1959년 3월 북한은 『회상기』 1권을 출판하면서 회상기에는 ‘허구 없이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거기에는 당시 항일빨찌산들의 ‘혁명을 위한 불요불굴의 투지, 인민과의 연계, 난관의 극복, 혁명적 동지애’¹⁷⁾를 담고 있음을 설명한다.

16)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였던 혁명투사들이 쓴 회상기들을 묶은 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가 편찬하고 조선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1957년부터 1970년 3월까지 모두 12권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여러 차례 걸쳐 재판되었으며 분책으로 나뉘어 출판되기도 하였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드시고 영웅적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생동한 력사자료들을 통하여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다.”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제24권 (백과사전출판사, 2001), p. 127.

17) 조선로동당 당력사연구소,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출판에 대하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1961 [번인]).

『회상기』는 1968년 1권부터 9권까지 재판되고, 10권이 새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1968년 재판된 1권부터 9권은 1959년부터 출판되었던 회상기의 글 중에서 특정 인물들의 글이 빠져 재판되었고, 또한 새로운 글들이 포함되었다.

〈표 1〉을 보면, 1967년에 『회상기』가 9권이 출판되었고, 1권도 다시 출판되었다. 하지만 1968년 다시 1권부터 9권이 재판되었다고 『조선중앙연감』에 기록하고 있다. 『회상기』와 함께 1932~1945년 항일무장투쟁이 진행되었던 시기의 회상기인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도 1967년까지 3권이 출판되었다. 하지만 1968년에 1, 2권이 재판되었다. 회상실기인 『인민들 속에서』는 1967년까지 출판되었던 1~5권이 1969년 재판되어 다시 출판되었다.

〈표 1〉 『조선중앙연감』 출판목록

년도	『조선중앙연감』 출판목록
1967	『김일성 저작선집』 1권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9권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1권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1~3권 『어떤 역경 속에서도』 (회상기) 『북만원정의 길에서』 『아동단원들의 투쟁』
1968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1~9권 재판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10권 출판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1, 2권 재판 『인민들속에서』 6, 7권 (회상실기) 『항일무장투쟁시기 선전선동활동』
1969	『4천만의 아버지』 (회상자료 묶음) 『인민들속에서』 8권 『인민들속에서』 1~5권 재판
1971	『인민들속에서』 9, 10권(회상실기) 『위대한 수령을 따라 배우자』 5권

* 출처: 『조선중앙연감』 1967~1971년의 출판목록 내용을 정리함.

1959년부터 출판되었던 『회상기』는 1967년 제4기 15차 전원회의 이후 갑산파 핵심인물들의 글이 삭제되어 1968년 다시 출판되었다. 기억의 역사화 과정은 당시 정권 지도부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갑산파 숙청이후 갑산파의 역사적 기억은 당시 정권 지도부인 김일성과 빨치산 파의 결정에 의해 ‘배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알바쉬의 주장대로 기억은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 현재시점의 사회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갑산파의 기억은 1968년 이후 북한정권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배제’, ‘망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은 당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있어서 김일성의 혁명 전통이 아닌 ‘자본주의 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잡사상¹⁸⁾’을 퍼뜨리려고 했던 현상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사상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을 경우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회상기』 학습을 제대로 할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갑산파에 대해 그들은 투쟁 당시 사상대로 계속 혁명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사상적으로 변질되었다고 지

18) “지난날 나쁜놈들은 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할 대신에 당의 계급로선을 어기고 지주를 되살리려하였으며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온갖 잡사상을 퍼뜨리려하였습니다. 그놈들은 <목민심서>를 간부들과 당원들의 필독문헌으로 내리먹이고 사람들에게 지주놈이 쓴 시를 읽게 하였으며 청년들이 날라리를 부리게 하는 이른바 <10개년전망계획>이라는 것까지 세워 내리먹였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가 이자들을 그냥 놔둘수 없었으며 그놈들을 제때에 쳐야 모든 것이 명백해지고 당의 로선을 옹계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반당분자들을 치고 그놈들이 퍼뜨린 부르주아사상과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사상을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사상 여독을 철저히 뿌리 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오직 우리 당의 유일사상밖에 모른다는 확고한 혁명적 관점으로 무장시킬 과업을 내세웠습니다.” 김일성, “간부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2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154.

적하면서 항일무장투쟁 당시 김일성의 사상과 역사만이 1968년 당시 인정될 수 있는 가치임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날 항일무장투쟁을 한 사람도 결코 예외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학습하는 것은 무장투쟁을 할 때 그들의 사상이 순결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들의 사상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회상기를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 개별적 사람들이 앞으로 변질되지 않으리라는 절대적 담보는 없습니다. 그들이 지난날 무장투쟁을 할 때의 그 사상대로 계속 혁명 사업을 잘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들 가운데도 도중에 사상이 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¹⁹⁾

당시 갑산파는 당 내에서 사상문화 분야의 핵심 간부들로 정통 맑시즘을 추구하면서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교육하는 것 대신 민족의 전역사와 다양한 항일운동을 포함한 역사교육을 시도하였다. 즉 갑산파의 항일운동의 역사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김일성 개인의 사상이 아니라 명백히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실천적 경험의 종합개괄 위에서 제시된 사상’으로 이해하는 등 혁명전통의 다원화를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회상기』학습의 빈도수도 줄어들고 혁명전통의 유일적 강조 분위기도 약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당시 『로동신문』의 기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다음의 <표 2>는 1960년대 『로동신문』에 나타난 혁명전통 관련 기사 횟수를 비교해 놓은 것이다.²⁰⁾ 1959년에 출판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는 1962년 당시 『로동신문』에 관련기사가 많이 게재 되었다. 하지만 1966년의 경우 항일혁명전통 관련 기사보다 일반 역사문화전통 관련 기

19) 위의 글, pp. 153~154. 밑줄은 필자.

20)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 296.

사가 더 많이 게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갑산파가 숙청된 이후 1968년의 시점에서는 항일혁명전통 관련 기사만이 게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1960년대 『로동신문』에 나타난 혁명전통 관련 기사 회수

	1962. 8~10	1964. 4~6	1966. 8.	1968. 8.
항일혁명전통 관련기사 회수	25	8	1	16
일반 역사문화전통 관련기사 회수	27	3	13	0

*출처: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 296.

이에 대해 김정일은 1967년 당시 갑산파들이 『회상기』를 출판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당원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비판하였다.

반당반혁명분자들은 혁명전통의 폭을 넓혀야한다고 하면서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이룩된 우리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오가잡탕을 끌어넣으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구실 저구실을 붙여가면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자료를 출판하지 못하게 방해하였으며 회상기는 옛말책을 보듯이 한번 읽어보면 된다고 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흐리게 하고 말살하며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반당적 반혁명적 행위인 것입니다.²¹⁾

이후 『회상기』는 1968년 이전에 출판되었던 1~9권은 갑산파의 역사와 기억은 '배제'된 상태에서 재판되었고, 1969년 12권까지 출판되어 혁명전

21)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 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데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15일), 『김정일 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234~237.

통 교양서적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1968년 재판된 『회상기』는 혁명전통 교양 자료로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동원되어 적극 활용되었다.

이후 북한은 2003년 『회상기』의 수정재판을 출간하였다. 북한은 수정 재판 1권을 출간하면서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이전에 출판되었던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전투회상기』,²²⁾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의련속 권들을 종합하여 전 20권으로 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출판하게 된다”²³⁾면서 또한 ‘역사주의적 원칙’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였음을 언급하였다. 2012년 『회상기』 20권이 출간되면서 완성되었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은 경제부문의 개혁조치들과 남북관계의 개선 등 변화를 모색하였지만, 2002년 2차 핵위기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경제난의 지속, 그리고 시장화로 인한 북한사회 아래로부터의 변화 감지 등이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혁명전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2003년 11월 북한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현실적 요구”에 의해 항일무장투쟁 시기 김일성과 빨찌산들 관련 회상기를 모두 묶어 총 20권의 『회상기』 재출판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회상기』 학습이 한층 강조되었다.

22)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는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발행되었고,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전투회상기』는 조선인민군출판사에서 1960년에 1권과 2권이 발행되었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전투회상기』 서문에서는 항일무장투쟁 시기 전투기술을 중심으로 한 회상기로 김일성의 탁월한 영군술을 배우고, 항일빨찌산들의 적에 대한 증오, 전투에서의 용감성과 대담성, 적극성과 창발성 등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출판사, “서문,”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전투회상기』 1권 (조선인민군출판사, 1960, 1963 [번인]).

23)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제1권 출판,” 『로동신문』, 2003년 11월 13일자 1면.

2.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내용분석

1)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의 목적

북한은 2003년 『회상기』를 수정재출판하면서 이후 『회상기』학습을 통해 청년, 당원, 학생들에 대한 ‘혁명전통’ 교육을 강화할 것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히 『회상기』를 학습하는 이유 중 하나로 “미제와 직접 맞서고 있는 조건에서 혁명의 전진도상에 ‘고난의 행군’ 같은 엄혹한 시련의 시기가 또다시 닥쳐올 수 있다”고 언급, 사상무장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회상기』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이며, 이를 통해 강성대국건설을 성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년들 속에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 대한 학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 상태는 매우 좋다. 우리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혁명성이 강하며 도덕적으로 건전하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의연히 준엄하며 미제와 직접 맞서고 있는 조건에서 혁명의 전진도상에 ‘고난의 행군’과 같은 엄혹한 시련의 시기가 또다시 닥쳐올 수 있다.

회상기 학습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회상기 학습의 목적은 단순히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있는 역사적 사실을 아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강성대국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는데 있다. … 회상기를 한계목 학습하여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기본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여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혁명적으로 일하고 투쟁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²⁴⁾

24) “새 세대교양의 힘있는 무기,” 『로동신문』, 2006년 1월 25일자 4면. 밑줄은 필자.

2) 내용분석

북한은 ‘회상기학습’을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김정일에게도 유지시키고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²⁵⁾ 즉 『회상기』에는 수령의 혁명 활동, 수령을 모시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사상적 품모 등이 사실자료들을 통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혁명의 개척기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빛나는 귀감을 창조한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끝까지 받들어나갈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고 있으며 온 나라에는 불굴의 혁명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혁명적인사회적분위기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고조시켜야 하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을 강화하는 것이다.

...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는 수령님의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 활동과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일제를 때려부신 항일유격대원들의 사상적 품모가 생동한 자료들로 서술되어 있다. 열 번, 스무번을 읽어도 또 읽고 싶고 학습하면 할수록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것이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이다.²⁶⁾

즉 『회상기』 안에 그려지고 있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배워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회상기』 학습

25) 1959년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서문에서는 회상기를 출판하는 이유에 대해 항일빨찌산들의 혁명을 위한 불요불굴의 투지, 인민과의 연계, 난관의 극복, 혁명적 동지에 배우기 위한 것으로 서술되었고 이것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강조로 바뀌게 된 것은 1968년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가 다시 출판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26)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는 혁명전통학습의 귀중한 교과서,” 『로동신문』, 2004년 6월 3일자 1면. 밑줄은 필자.

의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회상기』가 재판되는 것과 함께 『로동신문』에서도 2003년 이후 회상기 학습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새롭게 재판되는 회상기의 내용을 발췌해 『로동신문』에 게재하고 있다. 2003년 이후 2011년까지 『로동신문』에 게재된 『회상기』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2003년 11월 13일 『회상기』 1권 출판 기사가 나간 이후 2004년부터 『로동신문』에 『회상기』의 글들이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로동신문』에서는 “무장을 위하여”, “조국의 진군길에서 맞은 설”, “하고자 결심만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등 『회상기』 제목이 언급되었고, 2005년에는 “뜨거운 심장들”, “고난의 행군” 2편의 『회상기』 글 전체가 게재되었다. 2006년에는 “불모지 보초”라는 글이 게재되었고 그 외 2편은 제목이 언급되었다. 주목할 것은 2007년인데, 2007년 한 해 동안 『로동신문』에 “인민을 리익을 위하시는 마음”, “죽음을 이겨낸 힘” 등 『회상기』 18편의 글이 집중 게재되었다.

『로동신문』에 실린 『회상기』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수령에 대한 충실성, 불굴의 혁명정신, 인민대중과의 연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⁷⁾ 이는 『회상기』 학습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것으로 특히 새 세대들에 대한 『회상기』 교육에서는 수령에 대한 대를 이은 충성이 교육 목적으로 제시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27)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령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하는데, 투쟁과 생활의 참된 교과서…회상기학습을 더욱 강화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 배워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것이다.” “우리 혁명의 개척기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로동신문』, 2005년 12월 10일자 2면.

〈표 3〉 2003년 이후 노동신문에 게재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년도	날짜	노동신문에 언급 및 게재된 회상기 제목(글쓴이) ²⁸⁾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²⁹⁾ / 『항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 ³⁰⁾ 권 호	내용 ³¹⁾	편수
2004	5.31	무장을 위하여(리봉수)	1권		5
	5.31	조국진군의 길에서 맞은 설(한천추)	3권/조총련 1권	수령에 대한 충실성	
	5.31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박영순)	7권/조총련 3권	혁명임무 책임성	
	6.30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키자(리을설)	18권		
	6.30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김명화) (혁명투사 최희숙동무를 회상하여)	3/조총련 2권	혁명적 신념	
2005	3.13	뜨거운 심장들(김봉연)	2권		2
	5.31	고난의 행군(조도연)	2권		
2006	1.25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김좌혁)	1권		3
	3.30	볼무지 보조(리오송)	2권	모든 생명 존중	
	11.10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김명화)	3권/조총련 2권	혁명적 신념	
2007	1.21	인민의 리익을 위하시는 마음에서(박영순)	(1968)8권	인민대중과 연계	18
	2.24	죽음을 이겨낸 힘(김성국)	5권/조총련 2권	혁명적 신념	
	3.18	혁명적 동지애로(박영순)	5권/조총련 3권	혁명적 동지애	
	4.29	참된 아동단원(최 광)	5권/조총련 3권	혁명임무의 책임성	
	5. 6	총을 잡기까지(박경숙)	(1968)8권		
	5.23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김좌혁)	1권	총대사상과 선군 ³²⁾	
	6.14	입대후 첫 전투총화(한태룡)	(1968)8권		
	6.24	우리는 혁명하는 사람들이니만큼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한천추)	확인 안됨		
	7. 5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오백룡)	5권/조총련 4권	인민대중과 연계	
	7.25	인민은 유격대를 피로써 도왔다(오백룡)	6권/조총련 4권	인민대중과 연계	
	8. 4	그는 끝까지 굴하지 않았다(조도연)	6권		
	8.13	기어코 나의 조국을 광복하리라(김성국)	6권/조총련 3권	조국애	
	9. 3	끝까지 싸워야 한다(손중준)	1권/ 조총련 2권	혁명적 신념	
	9.14	총 한방 쓰지 않고(손중준)	6권		
	10.13	혁명의 요구라면 못해낼 일이 없다(송승필)	(1968)8권/조총련 3권	혁명임무 책임성	
	11. 4	생명을 걸고(림춘추)	1권		
11.20	원수들의 흉계를 간파하시고(한천추)	6권/조총련 4권	혁명적 경각성		
12.20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동지를 회상하여(김명화)	(1968)8권/조총련 1권	수령에 대한 충실성		

백두의 혁명정신을 지나자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충실성을 따라배워야한다... 회상기를 학습하는 목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항일유격대원들의 사상정신적 풍모를 따라 배워 주체위업, 선군위업을 더 잘 수행하자는데 있다.³³⁾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에서는 1987년부터 『항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를 출간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는 북한에서 출판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내용별로 분류·발췌하여 총 5권으로 출판하였다. 총 5권의 내용은 다음의 <표 4>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 『로동신문』에서 『회상기』 학습을 통해 배워야 할 수령에 대한 충실성, 불굴의 혁명정신 등이 전체 5권에 분류되어 있다.

조총련의 『항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 1권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주제로 한 글들로 구성되었고, 2권은 ‘혁명적 신념’, 5권은 ‘인민적 사업작풍’을 보여주는 회상기들을 분류하여 출판하였다. 3권과 4권의 경우 혁명적 동지애, 조국애, 혁명적 책임성, 인민과의 연계, 혁명적 경각성 등

28) 표에서 음영표시가 된 것은 『로동신문』에 전체 글이 게재된 경우이며 그 외에는 『회상기』 학습과 관련해 중요한 글로 단순 언급된 것이다.

29)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의 권·호는 2003년 수정재판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8권부터 11권까지 입수하지 못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1968년도판 회상기 권·호를 (1968)으로 표기하였다.

30)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항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내용별)』 1~5권(1985).

31) 『로동신문』에 게재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글들을 내용별로 분류한 것이다. 분류 기준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항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내용별)』 1~5권 참고함.

32) “〈트.ㄷ〉로부터 시작된 백성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자—우리당의 귀중한 재보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로동신문』, 2006년 1월 25일자 4면.

33) “회상기학습을 더욱 심화시켜 대를 이어가며 혁명전통을 빛내이자!,” 『로동신문』, 2004년 6월 3일자 3면. 밑줄은 필자.

의 주제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내용별로 분류되어 있는 『회상기』의 글을 살펴보면 글 전반에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불굴의 혁명정신’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항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 내용별 분류

권	주제	편수
1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충실성을 보여주는 회상기	12편
2권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적신념을 보여주는 회상기	23편
3권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적 동지애를 보여주는 회상기	17편
	항일혁명투사들의 조국애를 보여주는 회상기	5편
4권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임무에 대한 책임성을 보여주는 회상기	14편
	항일혁명투사들의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관계를 보여주는 회상기	20편
5권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적 경각성을 보여주는 회상기	9편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보여주는 회상기	17편

다음에서는 『로동신문』에 게재된 글을 중심으로 『회상기』 학습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① 수령에 대한 충실성 ②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나누어 내용을 살펴보았다.

① 수령에 대한 충실성

『회상기』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회상기』 글 전반에 흐르는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1968년 이후 『회상기』 학습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강조되면서 『회상기』 출판을 통해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대중이 사회적 담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이다.

2007년 12월 20일 『로동신문』에 게재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를 회상하며’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글이라 할 수 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동지를 회상하며”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8권에서는 물론 1987년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출판된 〈항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내용별)〉 1권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충실성을 보여주는 회상기’로 분류되어 있다.

김정숙은 항일무장투쟁 당시 무조건적으로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했던 사람으로 수령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충실했고 그리고 사상적으로 김일성을 목숨 걸고 사수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

김정숙 동지는 김일성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에 그이의 충실한 전사로 자라났다. 김정숙 동지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싸웠고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 김정숙 동지는 이러한 때에도 어디까지나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였으며 그 립장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불견실한 자들과 견결히 투쟁하였다.³⁴⁾

이 글에서는 1938년 겨울 100일간의 고난의 행군 시기 김정숙의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김일성은 노약자들의 간호 임무를 김정숙에 주었고 김정숙은 장백현 청봉밀영으로 배치되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김일성의 명령을 받고 이미 후방사업을 수행하는 대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우연히 부대에 들어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불평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로 인해 김정숙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지만 이들을 폭로하고 심판을 받게 하였다는 것

34)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회상하며,” 『로동신문』, 2007년 12월 20일자 2면~3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항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내용별) 1』 (1987), pp. 22-23. 밑줄은 필자.

이다. 또한 1939년 가을 안도현 한양거우 부근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작식대원으로 참가한 김정숙은 김일성을 노리던 적들의 총을 몸으로 막았다는 일화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김정숙의 일화에 대한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 내용은 ‘당과 수령,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을 강조하는데 있어 중요한 『회상기』가 되고 있다.

② 불굴의 혁명정신

혁명적 신념, 혁명임무의 책임성 등 불굴의 혁명정신은 실제 거의 모든 글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김일성 수령의 명령에 따라 혁명적 임무를 책임성 있게 완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2월 24일 『로동신문』 2면에 실린 “죽음을 이겨낸 힘”은 김성국이 1943년 7월 죽음의 고비를 맞았던 당시를 회상하는 것으로, 김성국은 죽음의 문턱에 갔었으나 ‘공산주의자는 절해고도에 홀로 남을지라도 살아서 끝까지 혁명을 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말을 떠올리며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풀잎을 뜯어먹으며 산속에서 27일을 버텨낸 일화를 회상하여 쓴 글이다.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산주의자는 절해고도에 홀로 남을지라도 살아서 끝까지 혁명을 해야한다고 하신 말씀이 나의 가슴을 때렸기 때 문이다. 나의 정신은 또릿또릿 해지기 시작하였다. … 그런데 나는 지금 곤 난앞에서 주저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살아야 한다. 아무리 곤난할지라도 견 디여 내야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백번 넘어져도 백번 다 일어나 라고 가르치시었다. 혁명의 승리는 아직 멀었으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야 하지 않는가!³⁵⁾

35)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죽음을 이겨낸 힘,” 『로동신문』, 2007년 2월 24일자 2면. 밑줄은 필자.

물론 이 글은 조총련에서 출판된 『항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내용별)』에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적 신념을 보여주는 회상기’로 분류되어 있다. 김성국이 죽음 앞에서도 ‘혁명적 신념’을 갖게 된 것은 김일성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글 전반에는 김일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2007년 9월 3일 『로동신문』 제2면에 실린 “회상기” “끝까지 싸워야 한다”도 ‘혁명적 신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1940년 봄에 있었던 만보툰 전투를 회상한 내용인데 만보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손종준은 끝까지 ‘혁명적 신념’을 놓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김일성 사령관의 말씀’이었다고 회상한다.

만보툰전투에도 손태춘 동지와 나는 오래 동안 한 부대에 있었다. 그는 때때로 그때를 회상하면서 “나는 그때 적들이 막 우리 주위에 모여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 지 궁리가 나지 않았소. 그러나 다음 순간 곤란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하시던 사령관 동지의 말씀이 생각났소. 나는 바로 이 말씀대로 행동하였소.”하고 말하군 하였다.³⁶⁾

때문에 1967년 당시 갑산파의 수령과 혁명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불굴의 혁명정신’을 저버린 행동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회상기』의 주된 내용은 ① 수령에 대한 충실성 ②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회상기』 전반에는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회상기』는 수령과 인민들 사이에 공감대 형성을 통해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으로 계속혁명의 중요성이 함께 강조되면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

36)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끝까지 싸워야 한다,” 『로동신문』, 2007년 9월 3일자 2면. 밑줄은 필자.

이 김정일, 김정은에게로 이어지는 것이다.

『회상기』의 글이 2007년에 집중적으로 『로동신문』에 게재되었다는 것은 대를 이은 혁명의 중요성과 함께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IV.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의 활용

1. 교육

북한에서 『회상기』는 ‘혁명전통’을 교육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교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혁명전통’이란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고, 주체혁명의 대를 이어주는 핏줄기이며, 억 년 드물지 않는 조선 혁명의 만년 초석이고,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 재부”³⁷⁾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혁명전통’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일본 놈들과 맞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싸워 이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가장 고귀한 무기이다..”³⁸⁾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인정되는 유일한 혁명전통은 김일성이 1930년부터 1945년까지 만주지역과 백두산지역에서 이끌었던 항일무장투쟁 역사, 그것만이 ‘혁명전통’임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북한은 “1920년대 우리나라 초기 공산주의 운동을 놓고 볼 때 아직 김일성의 영도를 받지 못함으로써 출세욕과 사대근성이 박힌 종파분자들에 의해서 공산주의 운동은 4분 5열”³⁹⁾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지

37) 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제5권 (1984), p. 667.

38) 극동문제연구소, 『혁명전통강좌: 김일성 방송대학 강의안』 (1974), p. 16.

39) 위의 책, p. 16.

금 현재 북한체제에서 필요하고 인정되는 역사는 김일성에 의한 항일무장투쟁 시기의 역사만이 유일한 역사임을 설명한다.

특히 『회상기』를 ‘혁명전통’ 교육의 중요한 교과서로 인민들에게 읽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회상기 학습을 통해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항일혁명선렬들의 불굴의 혁명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을 학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혁명의 개척기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빛나는 귀감을 창조한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끝까지 받들어나갈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고 있으며 온 나라에는 불굴의 혁명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혁명적인 사회적분위기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고조시켜야 하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을 강화하는 것이다.⁴⁰⁾

2004년 『로동신문』에서는 불굴의 혁명정신과 혁명적 군인정신 등 혁명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회상기』 학습을 강화한다는 것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1967년 갑산과 숙청 이후 북한은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해 나가면서 그 중 가장 중시한 것이 ‘혁명전통’ 교양이었다. 북한에서는 『회상기』와 김일성의 문헌들을 기본학습교재로 사용하였다. 김정일은 그의 저작에서 ‘혁명전통’의 학습방법으로 ① 혁명전적지·사적지 답사를 통한 교양, ②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김일성 선집』 등과 같은 ‘혁명전통’ 교양 자료를 통한 교양, ③ 영화, 연극 등 문학예술을 통한 교양, ④ ‘숨은 영웅따라배우기 운동’을 통한 교양을 제시하였다.⁴¹⁾

40)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는 혁명전통학습의 귀중한 교과서,” 『로동신문』, 2004년 6월 3일자 1면. 밑줄은 필자.

『회상기』는 ‘혁명전통’,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교육시키는 중요한 교재로 여러 방법을 통해 학습되어지고 있다. 1959년 첫 출판된 후 1968년, 2003년 재판되었던 『회상기』는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 ‘김일성대원수님혁명활동연구실’, ‘김정숙어머님혁명활동연구실’에서 회상기연구발표모임을 통해 또는 필요에 따라 혁명전적지 사적지 답사행군에서, 각각의 작업장 등에서 발표모임을 통해 교양되고 있다.⁴²⁾

『회상기』는 인민학교 소년단원을 위한 아동용과 고등중학교 학생소년용이 따로 편집되어 출판된 교재로 만들어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용)항일유격대참가자들의 회상기』는 1985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하였다.⁴³⁾ 『(고등중학교 학생소년용)항일유격대참가자들의 회상기』 1권은 1994년부터 출간되어 대상에 따른 『회상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민학교 학생과 고등중학교 학생소년용 『회상기』의 서문에서는 ‘회상기 학습’을 하는 목적에 대해 ‘인민과 새 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의 뿌리’가 김일성에게서 시작되었고,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정신’을 본받아 김정일에 대해 ‘충성과 효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즉 새 세대들에게 후계자 김정일에 대한 끝없는 충성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상기』 학습을 하는 것이다.

41)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회상기』와 혁명전통교양자료들에 대한 학습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는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참된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청소년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제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474.

42)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제25권 (2001), p. 97.

43) 『(아동용)항일유격대참가자들의 회상기』의 경우 1985년 1권이 출간되기 시작하여 1997년 16권이 출간된 것이 확인된다. 이후 2000년대 후반 재판되어 출간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는 2008년 재판된 7권만이 입수되어 있다.

동무들은 이 회상기를 학습하면서 우리 인민들과 소년단원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똑똑히 알며 항일유격대원들이 보여준 충성심과 혁명정신을 본받아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감시다.⁴⁴⁾

학생소년들은 이 회상기를 열심히 읽으면서 오늘 우리 인민과 새 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의 뿌리가 경애하는 수령님에 의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어떻게 마련되었는가에 대하여 똑똑히 알며 항일유격대원들이 보여준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지극한 효성을 적극 본받아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끝까지 따르는 충성동이, 효자동이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⁴⁵⁾

1985년과 1994년 아동용과 고등중학교 학생용 『회상기』 서문에서 북한은 어린 새 세대들에게 수령에 대한 ‘끝까지’,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만들기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회상기』 교육은 이처럼 1차적으로 공교육에서 기반이 다져져, 2차적으로는 노동현장 또는 여가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1977년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이후 간부들과 근로자들의 일상적인 학습제도를 살펴보면 『회상기』 학습이 일상 속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금성청년출판사, 『(아동용)항일유격대참가자들의 회상기 1』 (1985)의 서문. 밑줄은 필자.

45) 금성청년출판사, 『(고등중학교 학생소년용)항일유격대참가자들의 회상기 (1)』 (1994)의 서문. 밑줄은 필자.

〈표 5〉 간부와 근로자들의 일상적인 학습제도⁴⁶⁾

일상적 학습제도		학습대상과 형식
일반 근로자	2시간 학습	하루일을 끝내고 매일 진행
	토요학습	매주 토요일 오후에 진행
	청년학교와 어머니학교	청년들과 여성들이 자기특성에 맞게 정치학습과 실무학습을 진행
간부	1개월강습	간부들이 1년에 1개월씩 학교에 가서 의무적으로 공부
	김일성고급당학교 인민경제대학	도간부들과 군 책임일군들을 재교육 도와군 책임일군 가운데서 수준을 더욱 높여주어야 할 일군들을 1년제반 또는 3년제 반에서 공부
	공산대학	고급간부들을 공부
	군당학교	리급간부들을 공부

* 출처: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79), p. 276에서 발췌 정리.

일반 근로자들은 매일 하루일과를 마친 후 실시되는 “2시간 학습”과 매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토요학습’을 통해 당정책, 혁명력사, 김일성과 김정일의 로작 학습과 회상기학습, 영화·소설과 같은 문화 활동을 통해 혁명전통과 당에 대한 충성, 공산주의 도덕교양 등을 교육 받는다고 한다.⁴⁷⁾

다음의 〈표 6〉은 로동신문에 게재된 각 대상별 『회상기』 학습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당원과 근로자의 경우 『회상기』를 읽고 연구발표모임, 웅변모임, 문답식 학습경연, 경제선동 등을 통해 심화하여 학습하고 있으며, 학교의 학생들의 경우 회상기연구발표모임, 글짓기, 혁명가요보급, 혁명전적지 참관 후 회상기 연구발표 모임 등을 통해 심화하여 학습하고 있었다.

46)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p. 129.

47)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79), p. 276.

〈표 6〉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방법

대상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방법
당조직	독보, 연구발표모임, 웅변모임, 문답식학습경연, 경제선동
학교	회상기연구발표모임, 글짓기, 혁명가요보급
	혁명전적지 참관 후 회상기 연구발표모임

*출처: 『로동신문』, 2004년 5월 31일자 1면, 2004년 6월 3일자 1~2면에서 발췌함.

당원, 근로자, 대학생들의 경우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또는 일과를 끝낸 이후 독보시간⁴⁸⁾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회상기』를 학습하게 하는 것은 새 세대들에 대한 혁명교육으로서,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북한 정권의 의도에 의해 역사화된 『회상기』의 내용은 새 세대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되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적 사실이 집단구성원들의 믿음과 결합되면서 초역사적 당위성을 갖게 된다. 북한은 새 세대인 학생들에게 『회상기』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고 나라의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사업”⁴⁹⁾이라 강조하고 있다.

⁴⁸⁾ 독보회는 주민들의 정치사상교육을 위해 매일 일정시간 김일성·김정일의 저작물을 비롯해 당에서 지정해준 필독도서나 신문 및 잡지 등을 읽고 독후감을 발표하게 하는 모임을 말한다. 독보자료에 따라 아침독보회·저녁독보회·김일성교시 독보회·김정일 말씀 독보회 등의 이름이 붙어 있다. 일과시작 전 각 부서 단위별로 30여 분간 실시되는 아침독보회의 경우 조회를 겸하고 있는데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교시를 학습하거나 그 날자 『로동신문』을 독회하며 하루 작업량 할당 및 공지사항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 독보회에서 김일성부자의 교시나 저작물, 신문·잡지의 내용을 읽어주는 등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을 ‘독보원’이라고 부른다. <<http://cafe.daum.net/Jlm/Fzj/99?docid=%B5%B6%BA%B8%CB%88&re=1>>

⁴⁹⁾ “자라나는 새세대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자: 회상기학습을 정상

또한 『회상기』 학습은 미국의 위협, 그리고 ‘고난의 행군’과 같은 최악의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세대들의 사상을 단련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한다.

청년들 속에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 대한 학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 상태는 매우 좋다. 우리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혁명성이 강하며 도덕적으로 진전하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의연히 준엄하며 미제와 직접 맞서고 있는 조건에서 혁명의 전진도상에 ‘고난의 행군’과 같은 엄혹한 시련의 시기가 또다시 닥쳐올 수 있다. … 회상기 학습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회상기 학습의 목적은 단순히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있는 역사적 사실을 아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강성대국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는데 있다.⁵⁰⁾

학교에서의 『회상기』 학습은 회상기연구발표모임, 글짓기, 혁명가요 보급, 혁명전적지 참관 후 회상기 연구발표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 영화와 소설 등 문학예술작품을 통한 다양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회상기』 학습은 빨치산들이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백두산 지역을 ‘답사행군’하면서⁵¹⁾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

화하여,” 『로동신문』, 2004년 8월 12일자 4면.

50) “새 세대교양의 힘있는 무기,” 『로동신문』, 2006년 1월 25일자 4면. 밑줄은 필자.

51) 답사행군이란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전통’을 교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에 조성되어 있는 혁명전적지나 혁명사적지에 당원, 근로자, 청소년학생들을 대상으로 답사행군대를 조직하여 참관하게 하는 행사로 1956년 6월 5일 김정일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고 한다.

으며 학생들은 물론 당원과 근로자들의 가장 좋은 학습방법으로서 권장되고 있다. 학생들의 경우 항일무장투쟁 당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경험한 듯 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매개물 즉, 『회상기』와 같은 역사책, 소설 등과 같은 문서는 물론 역사와 관련된 장소인 백두산 근처의 혁명전적지에서 진행되는 회상기 교육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⁵²⁾

공간과 시간은 집단기억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북한은 효과적인 집단기억의 창출을 위해 ‘백두산’이라는 특정장소를 선정, 학생들의 의식 속에서 항일빨찌산들의 ‘수령에 대한 충직성’ 등 담고 싶은 대상의 심리적인 상을 만들어 장소와 결부시켜 교육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의 『로동신문』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다. 북한은 『회상기』가 백두산 지역 혁명전적지 답사행군과 함께 진행될 때 효과가 더 좋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령님 따라’, ‘장군님 따라’, ‘끝까지 이어’ 등을 통해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각급 당 조직들의 사업계획에 따라 회상기독보와 연구발표모임, 실효모임, 회상기책 돌려보기 등 회상기를 통한 다양한 사상교양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 실효가 크다. 혁명전적지관리소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과, 혁명전적지답사숙영소들이 해당 단위의 사적과 회상기자료를 밀착시켜 진행하는 해설 강의는 답사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 피어린 항일전의 자욱이 어려있는 백두밀림속을 답사행군해가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회상기발표모임은 큰 은을 내고 있다. 답사자들은 항일선렬들이 걸던 그 길을 따라 행군하는 걱정과 흥분을 터치면서 투사들의 강의한 의지를 따라배워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가며 사회주의 강상대국건설을 다그쳐갈 충성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정녕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학습기풍은 위대한

52) 혁명전적지와 혁명전적지를 통한 답사행군은, 북한의 ‘혁명전통’ 교육을 위한 대표적인 정치적 의례로 인민학교 학생부터 성인들을 망라, 조직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다.

수령님을 따라 걸은 혁명천만리길, 경애하는 장군님따라 가야할 혁명의 천만리길을 상징하는 혁명전통의 성지 백두산지구에서 모범이 창조되어 온 나라에 일반화되어가고 있다.⁵³⁾

『회상기』 학습은 당위원회, 학교, 노동현장, 청년동맹, 직업동맹 등 조직생활에서 독보회, 회상실기 발표 등 회상기를 직접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 문답식 경연을 하는 등의 활동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답사행군’을 통한 관련 역사적 공간과 시간을 활용한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그 외 북한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회상기 교육을 통해 역사적 기억을 끊임없이 반복, 재확인하고 있다. 이에 적극 활용되는 것이 ‘문화적 매개물’이다.

2. 문화 · 예술

북한에서 회상기 학습은 기본적으로 『회상기』 출판과 보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극적 요소가 가미된 소설과 영화 등 예술작품을 활용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혁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여러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순차와 공정을 옳게 정하는 것이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는 선차적으로 읽어야 할 책이다. 언제나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와 『인민들속에서』와 같은 책들을 먼저 읽고 다음단계에서 소설책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책들을 읽어야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당을 따라 준엄한 선군혁명의 천만리를 끝까지 걸어 나갈 수 있다.⁵⁴⁾

53) “회상기학습을 더욱 심화시켜 대를 이어가며 혁명전통을 빛내이자!” 『로동신문』, 2004년 6월 3일자 3면. 밑줄은 필자.

북한당국은 인민들에 대한 『회상기』 교육에서 예술 문화적 도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 반복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특히 혁명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 교육에 힘쓰고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회상기학습을 월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선군혁명의 열렬한 투사로 준비시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진공적으로 벌러나가야한다. 자기 부문, 자기단위의 실정에 맞게 독보사업과 연구발표모임, 영화와 예술공연을 통한 교양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회상기학습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새 세대들이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많이 읽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한다.⁵⁴⁾

1967년 갑산파 숙청 이후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위해 여러 정치사회화의 도구들을 활용한다.⁵⁶⁾ 특히 1968년 이후부터는 김정일의 주도로 소설과 영화 등 예술작품들을 ‘집체창작’ 하기 시작하였다. 즉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상 교육이 중요한데,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체제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을 정치사회화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갑산파 숙청 이후 북한 문학예술계의 두드러진 특성은 유일사상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수령의 형상을 문학예술작품에 등장시키는 것이었다.

54)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는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어주는 귀중한 재보,” 『로동신문』 2007년 8월 20일자 1면 사설. 밑줄은 필자.

55) 위의 글. 밑줄은 필자.

56) 당시 갑산파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사상문화 분야를 담당하던 간부들로, 정통 맑시즘을 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김일성 개인숭배를 자제하고 혁명전통을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서 민족의 전 역사와 다양한 항일운동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다. 이로 인해 1967년 갑산파 숙청 직전에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의 빈도가 줄어들고 혁명전통의 유일적 강조분위기도 약화되었었다.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 p. 50.

이러한 작업은 ‘백두산 창작단’과 ‘4.15창작단’ 등 ‘집체창작’⁵⁷⁾에 의해 이루어졌다.

백두산 창작단은 1967년 2월 김정일에 의해 조직되어 영화부문에서 수령의 과거 투쟁경력을 형상화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기여하는 영화작품을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4.15창작단은 1967년 6월 29일 김정일의 주도⁵⁸⁾하에 설립되어 문학부문에서 수령의 형성을 창조하는 사업을 주도하게 되었고, 이후 장편소설 『불멸의 력사』 총서를 발간하게 된다. 김정일은 특히 백두산창작단을 지도하면서 ‘회상기 영화’를 창작하는데 주력하였다.

‘회상기 영화’란 항일무장투쟁 시기를 회상하여 쓴 『회상기』를 내용으로 하는 영화를 특별히 분류하여 일컫는 북한의 독특한 개념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회상기 영화’는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 중요한 교양수단의 하나이다. … 또한 회상기영화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항일유격대원들이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을 진실하게 형상화함으로써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다.⁵⁹⁾ 당시 백두산창작단은 『동지들 이 충을 받아주소』⁶⁰⁾, 『빨찌산영웅 김진 동무』⁶¹⁾등 여러 편의 회상기 영화를 창작하였다.

57) 1967년 이후 북한에서는 ‘4.15 창작단’, ‘백두산창작단’을 통해 개별 문학과 예술가들의 창작보다 집체창작을 통해 유일사상체계, 사회주의이념, 혁명전통의 이념, 혁명적 수령관 등을 반영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58) 김정일, “4.15문학창작단을 내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20일),” 『김정일 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247~248.

59) 『문학예술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pp. 1004~1005.

60) 김좌혁,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p. 119.

61) 오진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김정일은 1967년 당시 『유격대의 오형제』라는 장편 예술영화 창작을 직접 지도하면서 “대작창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다.⁶²⁾ 여기서 그는 대작이란 사람들에게 혁명발전과정을 보여주며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있어서 커다란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유격대의 오형제』를 혁명적 대작의 본보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⁶³⁾

1953년부터 1966년까지 제작된 영화들을 보면, 1960년에 제작된 예술영화 『동이 튼다』, 1962년 『돈화의 수림속에서』, 1964년 『너대원』, 『빨찌산의 뼈꼭새』, 1965년 『한 지대장의 이야기』 등 항일빨찌산, 혁명투사들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 중 『돈화의 수림속에서』, 『한 지대장의 이야기』 등은 『회상기』의 글을 토대로 만들어진 회상기 영화이다.

〈표 7〉을 보면 1967년 갑산파 숙청 이후 그 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혁명전통 관련 영화가 만들어졌고⁶⁴⁾, 내용에 있어서도 김일성과 그 빨찌산 동지들의 내용에서부터 김일성 가족(김형직, 강반석)의 항일혁명 활동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p. 124.

62) 조선예술출판사, “문학예술혁명과 빛나는 영도(5)”, 『조선예술』 (1984), p. 16.

63)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 pp. 136~137.

64) 위의 글, pp. 138~142.

〈표 7〉 1967년 이후 항일 혁명전통 관련 영화 목록⁶⁵⁾

년도	영화	
1967	예술	『강물은 흐른다』 『빨치산영웅 김진 동무』 『동지들 이충을 받아주오』 『한 아동단원의 이야기』
1968	기록	『불굴의 반일 혁명투사 김형직 선생』 『우리의 어머니 강반석 녀사』
	예술	『분계선마을에서』 『정방공』 『한지대장의 이야기』 『최학신의 일가』 『강물은 흐른다』 『성장의 길에서』(1,2부) 『유격대의 오형제』(1,2,3부) 『마을사람들속에서』 『한 너 공작원』
1969	기록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
	예술	『피바다』(1,2부) 『첫임무』 『빨치산 남매』
1970	기록	『새조선』(1,2부)
	예술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피는 마을』 『세상부럼 없어라』 『적후의 진달래』 『작전문건』 『마을을 지켜 싸운 인민무장대』
1971	예술	『빨간댕기를 찾는 소녀』
1972	예술	『꽃파는 처녀』 『첫걸음』
	광폭예술	『영원한 전사』
1976	기록	『왕재산혁명사적지』 『백두산』
1977	기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기혁명활동사적지를 찾아서』 (전, 후편)
	예술	『누리에 붙는 불』 『생활의 길을 따라서』
	아동	『나비와 수탉』
1978	예술	『첫무장대오에서 읽은 이야기』 『보이지 않은 요새』
1979	혁명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⁶⁵⁾ 위의 글, 〈표 4-27〉 참조.

북한은 당시 ‘회상기 영화’는 물론 『회상기』를 방송물로도 편집한 ‘회상기 방송극’⁶⁶도 적극 제작하였다. 영화와 함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회상기』를 인민들로 하여금 좀 더 쉽고,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회상기』를 인민들에게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교육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교재로 활용하고 있고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 영화, 방송극 등 ‘문화적 매개물’을 통해 반복적으로 교육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의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초역사적 당위성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3대 세습을 완성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경우 이전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보다 지도자로서의

⁶⁶ ‘회상기 방송극’이란 항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를 각색한 방송극. “회상기방송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되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학습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효과적인 방송문예편집물이다. 회상기방송극의 특성은 회상기의 내용을 그대로 방송극에 담는다는데 있다. 회상기방송극에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직접 쓴 회상기를 방송문에 형식으로 각색하는 것만큼 회상기의 기본사상과 내용을 손색없이 회상기방송극에서는 원작의 내용과 역사적 사실을 외곡하거나 자의대로 그 내용을 빼거나 보충할 수 없다. 회상기방송극의 대사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쓰는 고상한 혁명적 어휘들로 씌여진다. 회상기방송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며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문학예술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p. 362.

정당성 획득,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 등 많은 과제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체제의 불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되어진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체제 불안정성이 높은 가운데서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은 전형적인 독재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제력에 의한 국민 동원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이다. 하지만 위로부터의 강력한 통제력만으로는 인민들로 하여금 체제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북한은 인민들로부터의 자발적인 동원체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기억’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집중하였다.

북한에서 『회상기』의 출판과 문화적 매개들을 통한 다양한 교육은 그러한 의미에서 인민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원체계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회상기』는 항일빨찌산들 개인의 기억이 텍스트로 구조화되어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은 것으로, 개인 항일빨찌산들의 기억이 ‘선택’되어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은 것은 1967년 갑산파 숙청을 계기로 확인되었다.

1967년 이전까지 『회상기』 학습의 주된 목적은 ‘항일빨찌산들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1968년도 『회상기』가 수정되어 출판된 이후 회상기 학습의 주된 목적은 ‘김일성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2003년 수정재판된 『회상기』에서는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대를 이어 계속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특히 2007년에는 『로동신문』에 총 18편의 『회상기』의 글이 게재되고 있어 강조되었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대를 이어 강조될 필요가 있었던 시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회상기』 출판과 관련된 특징은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한 『회상기』 교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959년부터 출판된 『회상기』는 당시 회상기를 많이 출판하고 보급하는 방법으로 교육하였다. 특히 1950년대 말부

터 백두산 지역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가 발굴되면서 역사관련 공간과 시간과의 연관을 통해 기억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67년 갑산과 숙청 이후 1968년부터는 『회상기』가 갑산과 주요 인물들의 역사적 기억을 ‘배재’한 채 새롭게 출판되었다. 역사적 기억이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68년 새로운 『회상기』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교육하는데 있어 중요 교재로 활용되면서 다양한 문화적 매개물을 활용하여 인민들에게 전해졌다. 특히 ‘집체창작’을 통해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강화하였고 ‘회상기 영화’, ‘회상기 소설’ 등 다양한 형식의 문화적 도구를 통해 ‘극’화하여 수령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처럼 수령과 인민들 사이에 공감대 형성을 통해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동원해 내고자 하였다.

이후 북한은 새 세대들에 대한 회상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회상기』를 아동용과 고등중학교 학생소년용으로 대상에 따라 달리 출판하였고, 1987년에는 조총련에서 『회상기』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총 5권의 『항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내용별)』가 출판되기도 하였다. 이후부터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대를 이어 전승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2003년에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총 20권을 계획으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정하여 재출판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20권을 출판하면서 완료하였다. 2003년 이후 수정 출판된 『회상기』에 대한 교육은 새 세대에 대한 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고 자연스럽게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김일성에서 김정일, 다음 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특히 2007년도에 집중된 『로동신문』의 『회상기』 관련 글 게재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대를 이어 강조가 될 필요가 있었던 시기로, 위로부터의 강제력에 의한 인민 동원뿐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동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시기라 볼 수 있다.

북한이 3대 세습을 완성한 2012년 현재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정권의 정당성 획득, 경제난의 지속이라는 굵직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강제력에 의한 인민동원은 물론 역사적 기억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은 자발적인 동원 체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2년 총 20권의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가 완성된 상황에서 『회상기』 교육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생각된다.

■ 접수: 2012년 11월 6일 / 수정: 2012년 12월 3일 / 게재확정: 2012년 12월 3일

【참고문헌】

국문

- 권형진·이종훈 엮음. 『대중독재의 영웅만들기』. 서울: 휴머니스트, 2005.
- 극동문제연구소 편. 『혁명전통강좌: 김일성 방송대학 강의안』. 1974.
- 금성청년출판사. 『(고등중학교 학생소년용)항일유격대참가자들의 회상기 (1)』. 1994.
- _____. 『(아동용)항일유격대참가자들의 회상기 1』. 1985.
- 김광용. “북한 ‘수령제’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 김남식. “북한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국제정치논총』, 제28호 제1호 (1988), pp. 121~129.
- 김영수. “북한의 정치문화: ‘주체문화’와 전통정치문화”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 김일성. “간부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제2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김정일. “청소년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4.15문학창작단을 내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20일).” 『김정일 선집』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 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15일).” 『김정일 선집』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좌혁.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 김학이. “민족의 기억, 민족의 상상: 안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 김학이·김기봉 외, 『현대의 기억속에서 민족을 상상하다』. 서울: 세종출판사, 2006.
- 나은진. “전쟁의 역사화 방식과 공유기억의 문화적 재생산.” 『한국문화연구』, 제13권 (2007), pp. 315~342.
- 박광호. “김일성 통치에서 전통의 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 박원용. “집단기억의 강화, 왜곡, 은폐: 1920년~1930년대 러시아의 시각이미지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96호 (2008), pp. 87~114.
- 박지향. 『영웅만들기: 신화여 역사의 갈림길』. 서울: 휴머니스트, 2005.
- 박형중. 『북한의 정치와 권력』. 서울: 백산자료원, 2002.
- 백승옥. 『중국 노동자의 기억의 정치: 문화대혁명 시기의 기억을 중심으로』. 서울: 풀리테이아, 2007.
- 서유석. “북한 『회상기』의 영웅서사 상징에 관한 연구.” 『동양정치사상사』, 제6권 2호 (2006), pp. 199~221.
- 안병영. “통일 및 북한연구의 방법론 평가.” 『통일정책』, 3권 1호 (1977), pp. 21~59.
- 양호환. “집단기억, 역사인식, 역사교육.” 『역사교육』, 제109집 (2009), pp. 1~35.
- 오진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 이영미. “북한 정치교육에서 전통문화 역할에 관한 연구: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96).
- 이우영. 『북한 정치사회화에서 전통문화의 역할: 북한영화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임순희. “북한 여성의 정치문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전공 박사학위논문, 1993).
- 임지현·김용우 엮음. 『대중독재 1.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 서울: 책세상, 2004.
 _____ . 『대중독재 2. 정치종교와 헤게모니』 서울: 책세상, 2005.
 _____ . 『대중독재 3. 일상의 욕망과 미망』 서울: 책세상, 2007.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항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내용별) 1』. 1987.
-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1967-1982”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1).
- 정철희 외. 『상징에서 동원으로』. 서울: 이학사, 2007.
- 제프리 K. 올릭 엮음. 최호근·민유기·윤영휘 역. 『국가와 기억: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본 집단기억의 연속·갈등·변화』.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 조선로동당 당력사연구소.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1961(번인).
- 조선예술출판사. 『문학예술혁명과 빛나는 영도(5)』. 1984.

- 조선인민군출판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전투회상기』1권.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1960, 196(번인).
-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조지L. 모스 저. 임지현·김지혜 역. 『대중의 국민화: 독일대중은 어떻게 히틀러의 국민이 되었는가?』. 서울: 소나무, 2008.
- 최재훈. “북한사회에서 전통의 지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 최호근. “집단지억과 역사.” 『역사교육』, 제85집 (2003), pp. 159-189.

기타

- 『로동신문』 2003년 11월 13일자 1면.
- 『로동신문』 2004년 6월 3일자 1면, 3면.
- 『로동신문』 2004년 8월 12일자 4면.
- 『로동신문』 2005년 12월 10일자 2면.
- 『로동신문』 2006년 1월 25일자 4면.
- 『로동신문』 2007년 2월 24일자 2면.
- 『로동신문』 2007년 8월 20일자 1면.
- 『로동신문』 2007년 9월 3일자 2면.
- 『로동신문』 2007년 12월 20일자 2~3면.
- 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제5권, 1984.
- _____. 『조선대백과사전』 제24권, 2001.
- _____. 『조선대백과사전』 제25권, 2001.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79.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문학예술사전』. 1972.

Abstract

Political Utilization of Historical Memory:

An Analysis of *A Memoir of the Anti-Japanese Guerrilla Participants*

Cho, Eun Hee (Ewha Institute of Unification Studies)

North Korea, a typical regime of dictatorship, has not only routinely mobilized its people by force, but also continued its efforts to obtain a system of voluntary mobilization of the people. A good example of this type of effort can be found in North Korea's political utilization of *A Memoir of the Anti-Japanese Guerrilla Participants*(*Memoir* hereafter).

The purpose of studying *Memoir* when it was published in 1959 was to learn the anti-Japanese revolutionary spirit. However, since 1969, the purpose has changed into the fidelity for Kim Il-sung. And since 2003, the generational transferring of the fidelity has been highlighted in the study of *Memoir*. In 2007, 18 articles related to *Memoir* were published intensively in the Rodong Sinmun. North Korea needed fidelity for its leader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order to stabilize the hereditary system.

Since the 1980s, different versions of *Memoir* have been published respectively for children, secondary school students, and adults. In addition to this, multiple cultural media such as film and novel adaptations of *Memoir* was developed for the political education of the people.

Starting from 2003, North Korea has completed the publication of the newly edited version of *Memoir*(20 book series) in 2012. Given its struggle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political power and overcome the economic

situation, North Korea is expected to further strengthen the education of *Memoir* as part of its efforts to resolve those challenges.

Key Words: memory, history, *A Memoir of the Anti-Japanese Guerilla Participants*,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revolutionary tradition

조은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북한의 답사행군을 통해 본 혁명전통의 의례 만들기”, “북한의 국가기념일을 통한 정권의 정당성 강화”, “탈북대학생들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변화” 등이 있다.